



인·허가 반려 핵심 '주민 민원', 법적 근거 없다

공공기숙사 건립 지역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서울】 지난달 16일 학생 3,480명이 제출한 기숙사 신축 족구 공동민원에 대한 동대문구청의 답변이 지난달 30일 나왔다. 답변내용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기숙사는 관계법령과 건축인가(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져야 가능'하며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반려한 것은 아니다.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청하게 되면 민원해소 방안과 함께 가능한 빠르게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내용을 전했다.

총학, 공동민원 답변 반박

'주민요구 이의관철이 목적'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지난 7일 '동대문구청의 답변, 원칙 없음이 실망스럽습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학교와 학생들은 상생의 길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의 요구는 상생이 아닌 이의 관철을 목적으로 오히려 거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원답변 내용처럼 동대문구청은 현재

건축 인·허가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조건을 꼽고 있다. 하지만 반려과정의 시점을 살펴보면, '민원' 조정이 핵심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우리학교는 공공기숙사관련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접수를 각각 지난 7월 18일과 23일 접수했다. 이후 지난 8월 4일부터 동대문구청과 학교, 지역발전협의회의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민원조정협의체를 통해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8월 26일 학교와 지역발전협의회간 논의도 소득이 없었고, 다음날인 27일 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를 동대문구청이 반려했다. 현재까지 공공기숙사를 두고 조정과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입장차'만 있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다.

하지만 건축 인·허가는 기속행위(羈束行為), 즉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민원은 반려 '이유'가 될 수 없다.

최근 우리학교의 기숙사 문제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주민 민원으로 기숙사 건축 인·허가가 불허된 홍의대는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지난달 23일 법원은 홍의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홍의대가 주민 민원 해소라는 건축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아니다"라며 법리상 제한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에 의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률상 제한 아닌 민원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위법"

결국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동대문구청은 이달 중으로 학교와 지역발전협의회 측에 최종 조정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SPACE21 건설사업단 장석원 팀장은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숙사와 별도로 한의과대학과 이과대학이 신축되는 SPACE21사업은 건축인·허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문구청의 반려 이후 지난달 27일과 29일 각각 건축허가와 실시계획인가를 재접수했다. 문제로 지적된 환경영향평가 등에 제시된 조건은 지난 3일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 1면에서 이어짐

-공공기숙사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도 적지 않다. 특히 경희대학교 인근 상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따라서 주민 전체의 입장 을 헤아려, 공공기숙사 건립에 힘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나?

A. 물론 공공기숙사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도 많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공공기숙사에 들어와 생활하게 되면 인근 상가들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활성화는 학교발전 뿐 아니라 장래 동대문구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생존권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임대업 주민의 반발도 적지 않다. 특히 공실이 많은 오래된 주택 주인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때문에 누구도 버리고 갈 수는 없다. 그렇기에 동대문구청에서 전체 주민들과 학교의 의견 듣고, 조정하고, 수렴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안전한 동대문구' 실현을 위해 안전전담 총괄 부서를 신설할 계획 중에 있고,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추진으로 촘촘하고 총체적인 안전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대학생 주거난은 공공기숙사 한 동이 지어진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우리학교는 공공기숙사가 건립되도 수용률이 8%에 불과하다. 연세대나 성균관대의 21.6%에 턱이 부족하다. 동대문구 차원에서 이런 주거문제를 지원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모두 어렵다. 재정은 그대로지만, 당장 기초연금부터 무상보육비까지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규모 공공주택은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다. 물론 임대주택 몇 채를 상정적으로 지을 수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긴 어렵다. 동대문구에서 협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

-자취하는 학생들은 '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문동이나 회기동 일부 지역은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지역 안전문제를 강화시킬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회기동 102번지와 103번지 일대의 어둡고 낙후된 골목길에 대해 작년 9월부터 벽화그리기 사업, 운동기구와 마을 쉼터 등을 설치하여 늘 밝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리가 되도록 조성 중에 있다. 아울러, 민선6기 핵심

구정운영 방향을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로 정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건으로 동대문구는 '안전한 동대문구' 실현을 위해 안전전담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자 계획 중에 있고,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추진으로 촘촘하고 총체적인 안전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청량리 일대를 신홍 상업지구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밝혔다. 청량리 일대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어떻게 바뀔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다.

A. 현재 청량리 일대 '청량리 4재정비 촉진구역'은 지난 9월 11일자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2019년 말 완공되면 주거, 업무, 판매, 문화, 숙박시설 등이 어우러진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게 된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업무, 숙박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시설이 들어서고, 저층부는 판매시설 특화단지로 청량리 민자역사와 연결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부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회기·이문 일대 상권이 침체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때문에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경희인 생활상품권을 상가번영회와 함께 운영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변화'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회기·이문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A. 회기·이문동은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근 전철역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상가가 형성되어 왔다. 이 지역이 역세권임에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기존 상가건물의 노후화와 젊은 층이 선호하는 특화된 상가 부족 등을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동대문구는 그간 회기·이문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2년 회기동과 201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앞 일대에 대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마쳤다.

도로변 상가의 무질서한 간판 정비로 거리 미관이 크게 나아졌으며, 외대 앞 지하차도 건설, 휘경시장 정비를 통한 대규모 점포 입점, 인근 노후주택 정비, 골목길 벽화사업 등 노후 된 건축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

도시정비와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홍릉 농촌경제연구원을 매입하고 실버세대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는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지역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기동과 이문동 상가들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받게 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5학년도 동서의학대학원 전기 모집요강

I. 모집학과 및 과정

모집학과(전공)	학위명	세부 연구 분야	모집 과정			
			석사	박사		
			신입	편입	신입	편입
동서의학과	한의학/의학전공	한의학/의학 석·박사	동서현진/통합의학 증기세포학 신경의리학	○ ○ ○ ○ ○		
	대체보완의학전공	대체의학 석·박사	통합의학 자연요법학 신생아학 대체보안카이로프리틱 대체보건기능양생학	○	○	
동서의과대학	식의약소재학전공	의과학 석·박사	소재보안/분유기화학 대사생화학/분화학 세포생리학/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생물학	○ ○ ○ ○ ○		
	한의학전공	한의학 석·박사	신경의학/임상해부학 면역·생물학	○ ○ ○ ○ ○		
의학영양학과	의학영양학/임상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 석·박사	질병영양/임상영양학 예방영양/보건영양학 면역영양/증용영양학 피부영양/기초영양학	○ ○ ○ ○ ○		

* 동서의학과 한의학/의학전공 지원자의 학문분야는 의·약학 및 생명과학분야 전공자에 한함.

II. 모집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형 안내	2014.10.13.(월) ~ 11.13.(목)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 http://gsm.khu.ac.kr
2. 원서 접수	2014.10.20.(월) ~ 11.13.(목) 17:00 까지 (종료일 및 토, 일요일은 제외)	우편별문집수, 이메일접수
3. 서류 제출	2014.10.20.(월) ~ 11.13.(목) 17:00 까지 (종료일 및 토, 일요일은 제외)	동서의학대학원 행정실 (구 국제경영대학원 203호)
4. 전형 일시	2014.11.22.(토) 10:00	국제캠퍼스(수원) 지정장소 (원서접수 후 홈페이지 게시)
5. 합격자 발표	2014.12.01.(월) 16:00 예정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 http://gsm.khu.ac.kr
6. 예치금 등록	2014.12.01.(월) ~ 12.05.(금)	한·영문 전자자정 (합격자 유의사항 참조)
7. 합격자 등록	2015.02.02.(월) ~	학정 일자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2015학년도 법무대학원 전기 모집요강

1. 모집학과 및 전공(야간)

구 분	학 과	전 공
신입생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법학과 중국법학과 지적재산법학과 조세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입법전공, 광복전공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전공
편입생	전체학과	
나.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		
연구과정	글로벌/한법학과 공공법학과 중국법학과 지적재산법학과	글로벌/한법전공 입법전공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전공
특별과정	한·영 법률 번역과정/법률영어, 법률번역, 법률작문, 미국법입문, 한국법입문	

2. 지원자격

구 분	자 격
신입생	•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편입생	•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이상 수강하여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전형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교부 및 접수	2014.10.20.(월) ~ 11.7(금)	2014.11.24(월) ~ 12.5(금)
전형일	11.8(토) 10:00	12.6(토) 14:00
합격자 발표	11.11(화) 16:00	12.9(화) 16:00
등록여지금 납부기간	11.12(수) ~ 11.14(금)	12.10(수) ~ 12.12(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hsb2670@khu.ac.kr)

</